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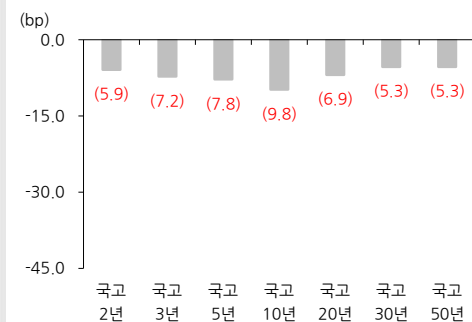
한화 FI Weekly

크게 말고 꾸준히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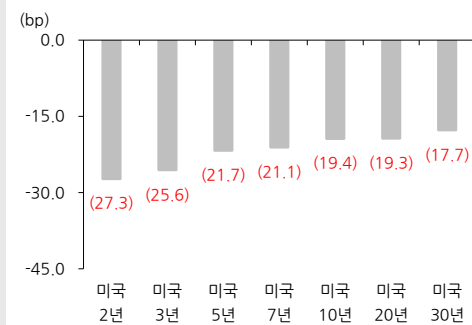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꾸준할 필요는 있으나 빠를 필요는 없다

일시적 요인을 걷어낸 고용은 여전히 양호함을 증명. 신규 고용자 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지만 미국 경기는 확장이 아닌 둔화 국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치는 절대로 부진한 것이 아님. 악화와 둔화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

실망을 논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 역시 빨라질 이유는 없다는 판단. 9월 기준금리 인하 시작은 사실상 100% 확정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Big Cut 가능성은 제한적. 고용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징후가 부재하기 때문. 연준 인사들 모두는 물가와 고용에 ‘균형’을 맞추는 중임을 설명. 어느 한 쪽에 ‘올인’이 아니라는 것

정책 조정 속도는 빠를 이유가 없지만 머뭇거릴 필요도 없음. 고용을 대하는 연준의 스탠스는 과거 최악의 ‘방지’에서 좋은 현상의 ‘유지’로 변화. 고용 둔화 사이클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잔결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적절

점도표 상의 장기 실업률 밴드와 현재 실업률을 비교하면 우물쭈물할 타이밍은 아님. 물가에 대한 연준의 노력은 효과가 발현. 여기에 고용까지 잡는다면 이중 책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업적을 세우는 것이 가능. 욕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점. 인하 빈도는 기존 예상보다 잦을 것

대출 규제 시차도 생각해보자

금융안정 관련 여러 대책과 규제,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환영할 일. 긴축 강도를 풀어나가는데도 확실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그러나 여러 대응들에 대한 효과와 영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일

대출 부문은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대출의 가장 최근 수치는 6월. 데이터 시차가 2개월임을 생각하면 9월 (규제가 강화된) 지표는 11월에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은행이 선부르게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 10월까지의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채권시장 전망

1-1. 꾸준할 필요는 있으나, 빠를 필요는 없다

일시적 요인을
건어낸 고용은
양호했다

일시적인 요인을 건어내고 보니 실업률은 하락했다.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높고, 35~44세 참여율은 2001년 3월 이후로 가장 높다. 지역 연은이 집계하는 고용 전망은 제조업 기준 5개 중 3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은 리치몬드 하나뿐이다. 뉴욕과 캔자스시티는 고용 심리지수가 공히 바닥을 찍고 반등 사이클에 들어섰다. 잠시 잊고있었던 민간 임금 상승률은 확대되었다.

경기 둔화 국면임을
감안하면 매우 양호

신규 고용자 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지만 미국 경기는 확장이 아닌 둔화 국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치는 절대로 부진하다고 볼 수 없다. 악화와 둔화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양호한 상황이면
연준도 급할 것이 없음

‘실망’을 논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 역시 빨라질 이유가 없다. 9월 기준금리 인하 시작은 사실상 100% 확정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Big Cut 가능성은 낮다. 고용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징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연준 인사들은 성향을 막론하고 큰 폭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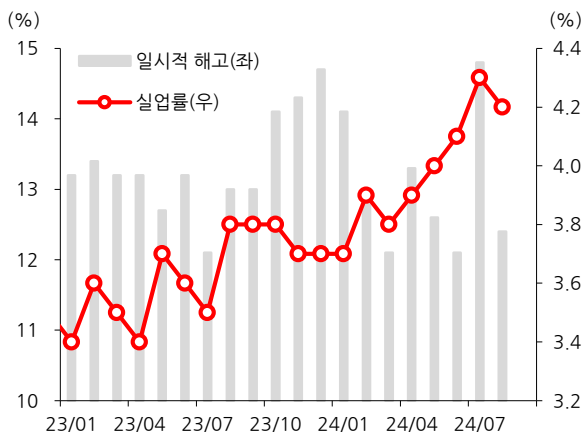
고용과 물가의
균형을 찾아나가는 연준

고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연준이 최대 고용 달성 책문에 ‘올인’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가 물가와 고용에 ‘균형’을 맞추는 중이라고 한다. 2022~23년 인상 사이클 때처럼 어느 한 쪽에 몰두하겠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Goolsbee조차도
Big Cut에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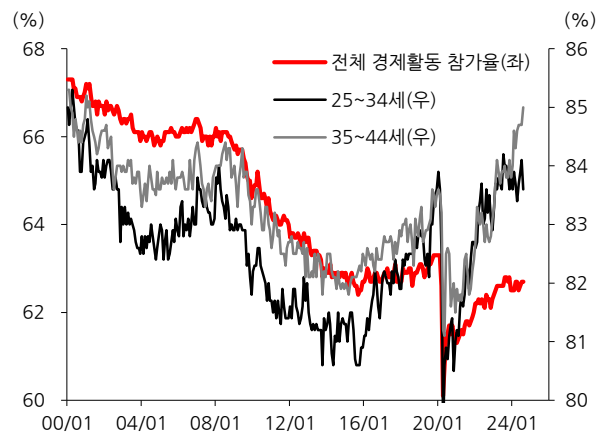
가장 온건하다는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조차 “Big Cut을 이야기하기 전에 점도표를 살펴볼 것을 권고”하며, “연준 구성원들은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실업률도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림4] 일시적 요인이 없어지니 실업률은 하락



자료: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경제활동 참여율도 견조



자료: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꾸준한
인하는 필요할 것

정책 조정 속도는 빠를 이유가 없지만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 고용을 대하는 연준의 스탠스는 과거 최악의 ‘방지’에서 좋은 현상의 ‘유지’로 바뀌었다. 고용 둔화 사이클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잔걸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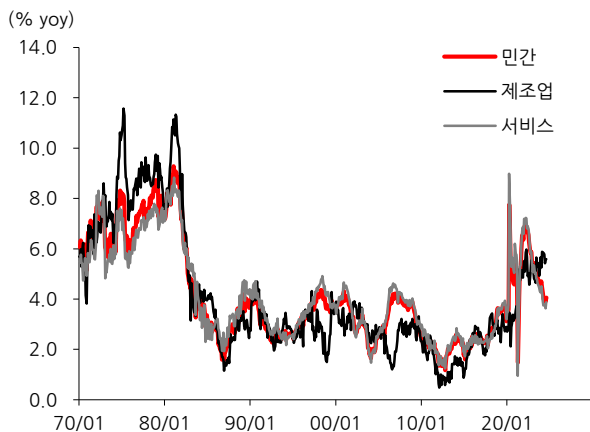
고용에 대해
욕심이 생겼기 때문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는 연말 실업률을 4.25%, 장기 실업률은 3.75%로 예상했다. 이 예상에 비추어보면 연말까지 현재 실업률 레벨에서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장기 실업률과의 차이는 0.50%p다. 1950년 이후 역사적 평균인 0.24%p의 두 배가 넘는다. 점도표 상의 장기 실업률 밴드(6월 기준 3.5~4.3%, 중간값: 4.1%)와 현재 실업률을 비교해도 우물쭈물할 타이밍은 아니다.

인하 빈도는
예상 보다 잦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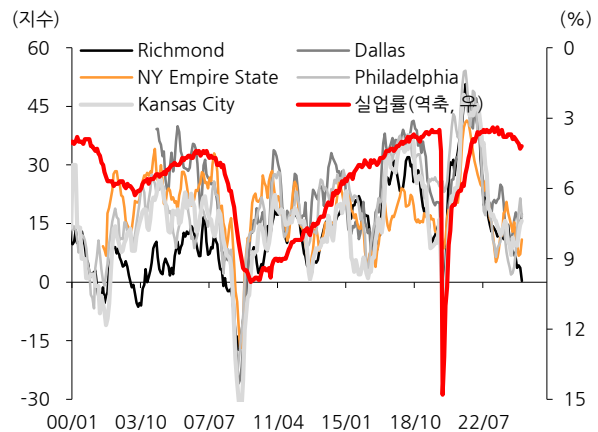
물가에 대한 연준의 노력은 효과가 있었고, 조심스럽지만 내년 즈음에는 승리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용까지 잡는다면 전무후무한 이중 책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업적을 세울 수 있다. 욕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하 빈도는 기존 예상보다 잦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6]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확대



주: Production and Nonsupervisory Employees 기준
자료: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는 고용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



주: 고용전망지수는 제조업 고용 전망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각 지역 연은,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2. 시차를 생각하면...

대출 관련 규제
강화는 긍정적인 일

정부의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은행권에서도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시켰다.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에 정부와 시중은행도 힘을 보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임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니 자연스레 10월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화당국 혼자만 전력투구할 필요가 없어졌고, 물가와 경기는 인하의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차를
감안할 필요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 정부 규제 강화와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 높이가 통화정책보다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조치들과 관련한 효과의 정도, 그 효과가 데이터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생각해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 데이터는 주간으로 발표되니 상대적으로 효과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물론 당장 뚜렷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첫 시작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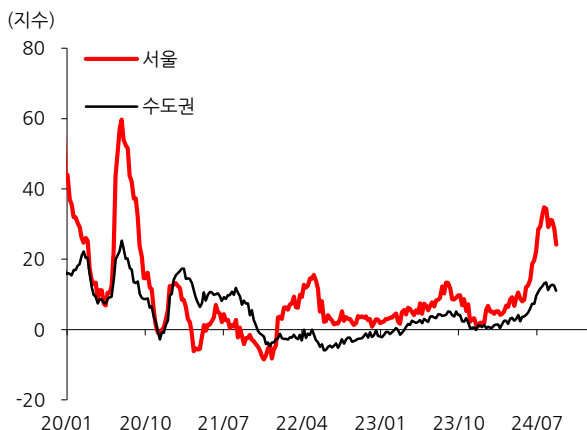
부동산 시장에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음

심리는 움찔하는 것 같다. 특히, 서울 매수우위지수가 크게 꺾였다. 반면, 정작 좁혀져야 할 부동산 가격 격차는 여러 대책과 규제에도 미동이 없다. 전국 매매가격 대비 서울 가격은 87주 연속, 수도권은 30주 연속 나머지 지역과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다. 집값 대책은 효과를 보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금통위가 10월 중순에 있으니 초조할 정도는 아니다.

가계 부채는
수치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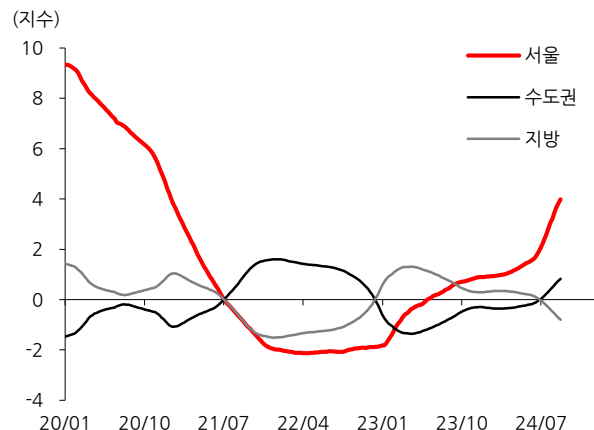
가계 부채는 다르다. 결과를 보려면 일단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책 시차를 고려해야 하는데 대출 부문은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대출 자료의 가장 최근 수치는 6월이다. 데이터 시차가 2개월임을 생각하면 9월(규제가 강화된) 지표는 11월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선부르게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못해도 10월까지의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8] 심리는 움찔하는 것 같지만



주: 전국 매수우위지수 대비 서울과 수도권 지수 차이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가격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주: 전국 매매가격지수 대비 서울과 수도권, 지방 지수 차이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

금융안정과 관련한 여러 대책과 규제,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긴축 강도를 풀어나가는데도 확실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대응들에 대한 효과와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물가와 경기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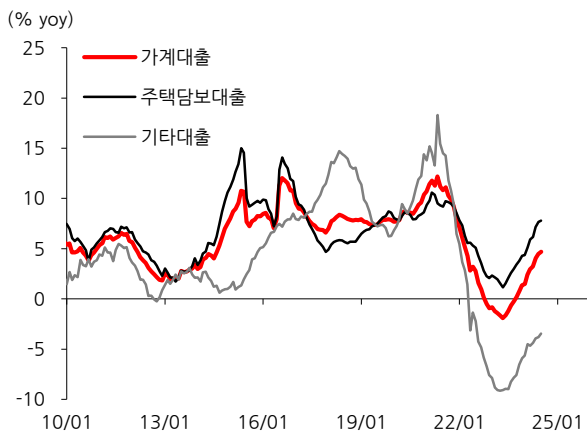
국고 3년: 2.80~2.93%
국고 10년: 2.90~3.03%

이번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2.80~2.93%, 2.90~3.03%을 제시한다. 연준은 조만간 통화정책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등 9월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ECB도 9월 인하가 유력해 보인다. 반영하지 못한 미국 고용지표와 대외 통화정책 이슈를 감안했을 때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 의사록은
하방 경직성 강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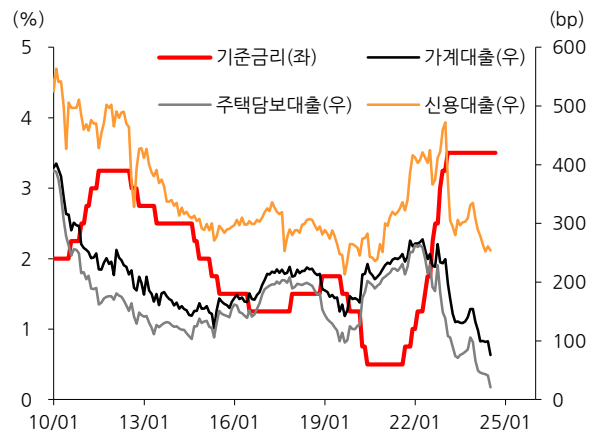
다만, 10일 공개 예정인 금통위 의사록에서 4명 인하 Forward Guidance는 말 그대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였을 뿐 금융안정에 대한 강경한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경우 하단이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10] 대출 요건 강화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 변동 추이



주: 대출은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통화정책 관련 당국자 발언 주요 내용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9/3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근원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2%로 둔화 -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은 큰 공급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 나타낼 것
9/3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문제는 심각. 모멘텀이 더 강화될 경우 방법을 찾아야 함 - 집값은 이미 버블의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소득 대비 집값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 - 금융당국이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어 지켜봐야겠으나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지켜봐야 함 - 통화정책도 스태ن바이할 필요.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 - 내수는 수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 물가가 둔화 효과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9/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 금융안정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움직일 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 - 물가상승률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수준에서 등락할 것 - 물가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이 지속 중 - 주요국 대비 빠르게 물가를 안정시킨 것은 그들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재정정책을 운영했기 때문
9/4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압력 둔화세는 빠르게 광범위한 품목들로 확산. 그러나 아직 승리를 선언할 때는 아니며 필요 시 연준은 기민하게 대응할 것 - 아틀란타 연은 관할지역 기업들의 업황이 나쁘지는 않지만(there is no panic) 고용시장 모멘텀은 약해지는 중 - 최근 물가 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간 뒤 지속적으로 그 부근에 위치할 것이라는 본인의 확신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었음 - 경제의 연착륙은 아마 실현될 것(may be within reach) - 통화정책의 긴축 장기화는 피해야 함(must not maintain restrictive policy stance for too long) -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취약한 수준은 아님 - 본인은 현재 물가와 고용 목표를 균등하게 주시 중
9/4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실질 기준금리는 상승.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진다는 것. 이는 과잉 긴축의 전형적인 모습 - 고용시장은 지속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sustained and protected),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필요. 과잉 긴축은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저해 - 고용환경이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 고용이 흔들린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음 - 임금 상승률은 지금도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며, 노동 수요 초과 현상도 지속. 기업들은 추가 고용에 신중해지기 시작했지만 해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음. 계속해서 둔화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함 - 50bp 인하 등 기준금리 관련 결정된 것은 없음. 회의 전까지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이 존재 - 연준은 현재 수준의 고용 환경과 함께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유지해 나갈 필요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9/6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now is appropriate to lower the fed funds rate) - 고용시장은 더 나은 균형을 찾았음. 더 이상 물가 상승의 원인이 아님 - 데이터 흐름에 달려있지만 통화정책은 조금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이동 가능 - 본인은 인하와 관련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음 - 연말 실업률은 4.25%, GDP 성장률은 2.0~2.5% 예상 - 향후 경제 관련 리스크는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 -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고용시장 완화는 어디까지나 과열국면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 부진이라고 볼 수 없음 - 본인은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확신. 연말 물가는 2.25% 전망. 내년 중 2.0% 도달할 것 - 장기 실업률은 3.75% 부근 - 연준의 이중 책무에 균형을 맞춰야 할 때
9/7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series of reductions in policy rate)하는 것이 적절 - 최근 3일동안 발표된 지표들은 고용시장의 완화(softening)를 보여주지만 결코 위축(deteriorating)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고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 - 경기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함 - 데이터가 지지한다면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능. 또한, 필요 시 큰 폭의 인하(larger cuts)도 가능 - 만약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연준은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 - 고용의 완화(softening)는 완만한 경제 성장(moderate growth)을 의미 -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 - 고용시장은 변곡점에 위치(the US labour market at an inflection point)
9/7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고용지표는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재확인시켜 주었음 - 고용시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특히,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의 대응이 중요 - 수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절대적인 컨센서스 - Big Cut을 이야기하기 전에 점도표를 살펴볼 것을 권고. 연준 구성원들은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실업률도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물가의 상방 압력이 사라진 것은 아님. 둔화 추세가 뚜렷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 - 제약적인 통화정책 유지는 경기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
9/8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인 발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 현재 통화당국과의 정책 공조는 매우 견조 - 2022~23년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은 탈피.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가 누적되어 수출 호조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더딘 편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내구재 소비 및 건설투자에 어려움이 존재. 민생과 내수를 부분별로 진단, 맞춤형 처방을 준비하고 시행할 것 -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과 실질소득증가율이 (+)로 전환.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 분모를 넓혔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음 -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출생 극복 과정에서 모기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인 늘어난 측면이 존재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9	10	11	12	13
(한국) 국고 3년 입찰(1 조 6,000 억원) (유로존) 9월 섀틱스 투자자 신뢰지수 (전월: -13.9, 전년: -22.7) (중국) 8월 CPI (예상(y): 0.7%, 전월바: 0.5%, 전년바: 0.5%) 8월 PPI (예상(y): -1.4%, 전월바: -0.2%, 전년바: -0.8%)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 (한국) 국고 2년 입찰(8,000 억원) (미국) 8월 NFB 중소기업 낙관지수 (전월 93.7, 전년 91.3) (중국) 8월 수출입(위안화 기준) (예상(y) 수출: 6.9%, 수입: 2.8%) (수출 전월바: -2.3%, 전년바: 7.0%) (수입 전월바: 3.4%, 전년바: 7.2%)	트럼프 - 해리스 토론회 (한국) 8월 실업률 (전월: 2.5%, 전년: 2.5%) (미국) 3년 국채 입찰 (3.81%, 간접: 64.4%, 응찰률: 255 배) 8월 CPI, Core CPI (CPI 예상 전월바: 0.2%, 전년바: 2.9%) (CPI 전월바: 0.2%, 전년바: 2.9%) (Core 예상(m): 0.2%, 전월바: 0.2%, 전년바: 3.2%) (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	유로존 ECB Governing Council Meeting (미국) 10년 국채 입찰(Reopening) (3.96%, 간접: 66.2%, 응찰률: 232 배) 8월 PPI (예상(m): 0.2%, 전월바: 0.1%, 전년바: 2.2%) (유로존) Reduce Spread Between Main and Deposit Rates to 15bps	(한국) 국고 50년 입찰(5,000 억원) 8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바: 0.7%, 전년바: 12.9%) (수입 전월바: 0.4%, 전년바: 9.8%) (미국) 30년 국채 입찰(Reopening) (4.31%, 간접: 65.3%, 응찰률: 231 배) 8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바: 0.7%, 전년바: 1.4%) (수입 전월바: 0.1%, 전년바: 1.6%) 9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잠정) (전월: 67.9, 전년: 67.9) (유로존) 7월 산업생산 (전월바: -0.1%, 전년바: -3.9%) (중국) 8월 산업생산(9/14) (예상(y): 4.7%, 전월바: 0.4%, 전년바: 5.1%) 8월 소매판매 (예상(y): 2.5%, 전월바: 0.4%, 전년바: 2.7%)
16	17	18	19	20
한국, 중국, 홍콩 휴장(추석, ~9/18) 일본 휴장(경로의 날) (미국) 9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예상: -4.0, 전월: -4.7, 전년: 1.9)	(미국) 8월 소매판매 (예상(m): 0.2%, 전월바: 1.0%, 전년바: 2.7%) 8월 산업생산 (예상(m): 0.1%, 전월바: -0.6%, 전년바: -0.2%)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월: 39.0, 전년: 44.0) (유로존) 9월 ZEW 경기전망지수 (전월: 17.9, 전년: -8.9)	(미국) 20년 국채 입찰(Reopening) (4.16%, 간접: 71.0%, 응찰률: 254 배) 8월 건축허가 (예상(m): 2.1%, 전월바: -4.0%, 전년바: -6.3%) 8월 주택착공 (예상(m): 2.3%, 전월바: -6.8%, 전년바: -16.0%) (유로존) 8월 CPI, Core CPI (CPI 전월바: 0.2%, 전년바: 2.6%) (Core 전월바: 0.3%, 전년바: 2.8%) (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	미국 연준 FOMC 브라질 BCB COPOM 영국 Bank of England MPC (한국) 국고 3년 입찰(1 조원) (미국) 8월 섀틱스지수 (전월바: -0.6%, 전년바: -5.2%) 8월 기준주택 판매 (예상(m): 2.5%, 전월바: 1.3%, 전년바: -2.5%)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